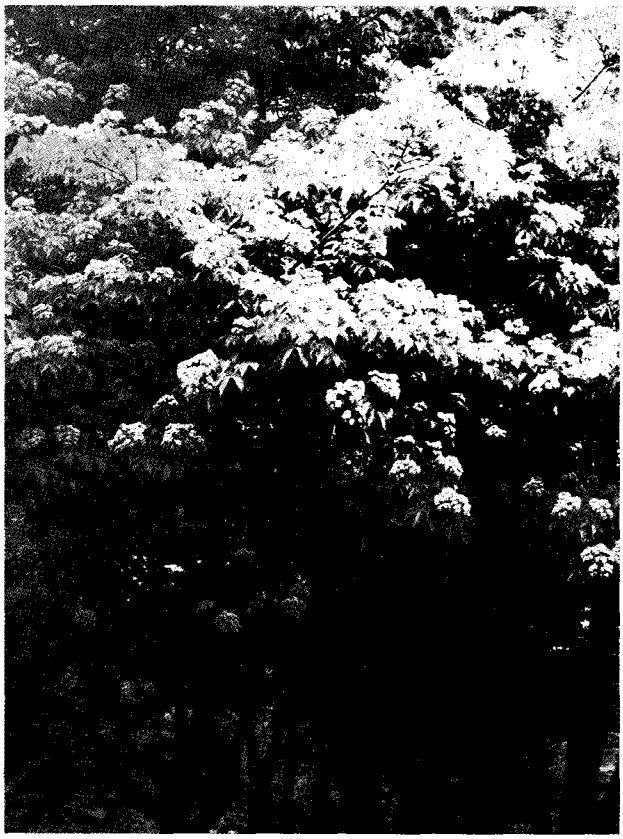
쉬나무
(학명 : Evodia daniellii, 운향과)



쉬나무 개화. 개화기간은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까지며, 한 화서에 꽃이 3,000개쯤 된다.

쉬나무는 7월 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40일간 흰색에 가까운 아주 연한 노란색 꽃이 많이 피는 중요한 밀원식물이다. 7~8월에 고속도로나 마을 주변에 밤나무꽃처럼 전체가 흰꽃으로 덮혀있는 나무가 쉬나무다. 경북 영천지역에서 7월 9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꽃이 피어 있었다. 한나무의 개화기가 이렇게 긴 것이 아니고, 좀 일찍 피는 나무와 늦게 피는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쉬나무꽃 화서 하나를 잘라 꽃을 헤아려 보았더니 3,000개쯤 되었다.

쉬나무꽃이 피는 이 기간도 역시 꽃피는 식물이 별로 없고, 장마기와 일치되어 양봉인들이 설탕물을 식량으로 주어야 된다는 시기지만, 이 쉬나무가 많으면 식량을 주지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채밀도 가능할 것이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 각처의 마을주변이나 전답주변, 도로변 등에 자라는 낙엽소교목으로 중국에도 분포하며, 높이 10m 까지 자란다. 잎은 대생하며 7~11매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엽은 타원형 난형 또는 장난형이며 길이 5~12cm이다. 잎 뒷면은 회록색

이며 맥액에 꼬부라진 털이 있다. 가지 끝에 원추화서가 나와 꽃이 피고, 열매는 삭과로 10월에 연한 갈색으로 익으며 5개로 갈라지며, 산초나무 씨같이 윤기가 나는 검은 씨가 한개씩 들어있다. 이 씨로 기름을 짜서 등유, 머릿기름 또는 해충구제 하는데 사용하였고, 또한 새의 좋은 먹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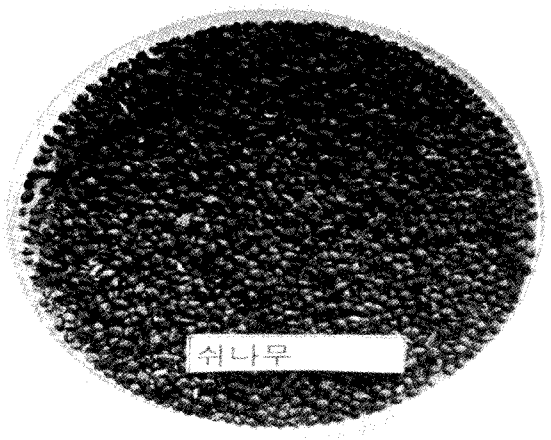
제2 오일쇼크때 어느대학교수가 '이 나무의 씨에서 기름이 나온다' 고 하여, 동아일보에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 이라는 사설이 나온 적도 있다. 그 교수는 그후 실제로 이 나무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등의 실험을 하였다.

쉬나무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쉬나무로, 경상도에서는 소동나무로, 전라도에서는 수유나무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오수유로 불린다. 북한에서도 수유나무로 부른다. 수목도감(홍성천 저, 계명사)에는 '오수유(E. officinalis)는 5-6월에 꽃이 피고, 잎 뒷면에 털이 있고, 열매 끝이 둥근 것' 으로 쉬나무와 다른 수종으로 기술하고 있다.

건국대 홍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산 쉬나무는 나무가 크게 자라나 꽃이나 열매는 국산보다 적다. 모든 생물체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영양생장을 많이 하면 생식생장을 적게 하고, 반대로 생식생장을 많이 하면 영양생장에 지장이 있다.

옛날에는 쉬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마을 주변에 많이 심었으며, 특히 서당주변과 봉화대 근처에 많다. 강원도 정선에는 아름드리나무가 있었으나 수년전 없어졌다.

쉬나무의 열매



쉬나무 종자

이 나무는 꽃과 열매가 많이 생산되어 영양분 소모가 많으므로 영양부족을 느낄 때가 많은데, 특히 붕소가 부족하면, 씨가 빨리 떨어지거나 씨를 채취해도 쭉정이가 많게 된다.

꽃은 7~8년생이 되어야 피기 시작하고, 접목을 하면 그 해 피기도 하나 다음 해부터는 피지 않는다. 즉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꽃이 피므로 굳이 접목을 할 필요없이 빨리 나무가 크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충실한 종자는 노천매장을 하면 90% 정도 발아하고, 노천매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합성세재(퐁퐁 등)에 모래를 섞은 것에 종자를 넣고 30분쯤 흔들어 씨껍질에 묻은 기름기를 제거하여도 70~80% 발아한다.

쉬나무를 자웅이주(雌雄異株)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면밀히 조사해 보니 자웅동주로 수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늦게 피었다. 그러므로 꽃이 늦게 피는 개체는 수정할 기회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아마 이런 나무를 숫나무로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다. 꽃이 일찍 피는 나무와 늦게 피는 나무를 확인하여 개화기를 더 빨리, 또는 더 늦게까지 피게 한다면 쉬나무는 가장 유망한 '한여름의 꿀나무'가 될 것이 틀림없는 좋은 밀원수종이다. **양봉**

쉬나무는 많은 꽃을 피운다.

쉬나무 꽃에 방화한 꿀벌